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15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 휴거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함

성경: 아8:1-5상, 계12:5, 7-11, 14:1, 4하, 창5:22-24, 히11:5-6

I. 휴거는 주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휴거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계12:5, 7-11, 14:1, 4하, 19:7.

- A.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하며 새롭고 친근하게 주님을 접촉하기를 배워 그분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후2:10, 4:6-7, 요일1:3.
- B.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1.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원수와 맞서 싸우도록 휴거되어 그분과 그분의 보좌로 올려져야 할 필요가 있으시다—계12:5, 7-11, 엡3:16-17, 6:10-11, 17-18.
 - 2. 주님에게는 그분의 원수와 맞서 싸울 사내아이가 필요하시지만, 그분의 만족을 위한 첫열매들이 더 필요하시다—14:1, 4하, 참조 롬8:23, 11, 14, 16, 26-27.
 - 3. 첫열매들은 하나님의 수확물 가운데 가장 먼저 성숙에 이른 이들이다—골2:19, 히5:14-6:1상, 엡4:13, 빌3:15, 참조 눅21:36.
 - 4. 첫열매들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휴거되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그분께 신선한 누림이 된다—출23:19상, 레23:10.

II. 그리스도의 연인은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어 생명이 성숙하며, 그녀의 소망은 그녀의 몸의 구속을 통해 휴거되는 것이다—아8:1-5상, 히5:14-6:1상, 빌3:21, 요일3:2-3.

- A. 성도들의 휴거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결하는 단계로서, 그것에 의해 우리와 주님은 하나님의 인치시는 영에 의해 신성한 요소가 적셔짐으로 똑같이 된다—엡1:13-14, 4:30, 롬8:29.
- B. 성숙은 변화의 마지막 단계, 즉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계속 목양하심으로 도달하게 되는 생명의 충만이다—“나의 평생에 나를 목양하신 하나님” —창48:15하, 17:1.
- C. 성숙한 믿는이는 변화의 ‘술’ 속에서, 하나님이 공활이 넘치시는 분이시며 각종 상황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충족한 분이심을 배웠다. 그의 신뢰와 안식은 전부 모든 것에 충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활에 있으며,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재능에 있지 않다—롬9:11-13, 16, 21, 23, 애3:21-24, 참조 레2:4.

III. 예측의 휴거를 처음으로 언급한 때서 휴거의 원칙이 세워진다.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데 달려 있다—창5:22-24, 히11:5-6.

- A. 우리를 땅에 속한 영역에서 완전히 구출하는 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단계 한 단계 동행한 결과이다. 휴거는 우리와 주님의 동행의 마지막 단계이다—아8:1-5상, 갈5:16, 25, 빌3:14.
- B.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분의 지속적인 주입 아래 있어, 우리가 그분의 건축을 위해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요일1:3, 창6:8-9, 13-14.
- C.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주체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관념과 갈망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일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출25:40, 시19:12-13, 참조 수9:14하, 눅24:15.
- D.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롬8:4, 13-14, 갈2:2상, 고후5:14-15.
- E.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심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이신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후5:4, 9, 14-15, 20.
- F.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여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드려 그분이 인도하시게 하는 것을 함축한다—마16:24-25, 고후2:13-14, 5:14-15.
- G.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고후5:7, 히11:1, 12:1-2상.
1.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히11:5-6, 고후4:13, 18.
 - a.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이 계시며, 우리 모두는 아무 것도 아니다—눅9:23, 창5:24, 히11:6, 갈6:3.
 - b. 믿음은 이것이다—“오, 아무 것도 갖지 않고,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만 보며, 아무 것도 관심하지 않고, 여기서 그분의 권익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여!”—다비(J. N. Darby).
 2.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이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히11:6, 창15:1, 빌3:8, 14.
 - a. 에녹의 보상은 최고도의 생명—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였다—히11:5상, 고후5:4, 롬8:6, 10-11, 5:17.
 - b.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시27:4, 8, 42:1-2, 43:4, 73:25, 119:2, 10, 대하26:5.
 3.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눅1:38, 롬10:17, 참조 살전 5:23.
 - a.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두셀라’ 라고 했다(창5:21). 이 이름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를 의미하는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 b.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두셀라라고 함으로써 므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므두셀라가 죽는 해는 노아가 600세가 되는 때였다—창7:6, 11, 5:25-29상.
 - c.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신성한 뜻에 감동을 받아, 인류의 경건치 않은 세대 전체에게 임할 심판을 안 것이다—유14-15.
 - d. 그때부터 에녹은 밤낮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고, 그러한 기대가 동기가 되어, 그는 그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휴거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벧후3:10-12, 히11:5.